

韓日 兩國 國語辭典의 漢字語 調査 및 傾向分析*

申 玟 澈**

(e-mail : mcshin68@hanmail.net)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 조사 대상 및 기준 |
| 2. 선행연구 | 3.1. 조사 대상 |
| 2.1. 어종별 통계 | 3.2. 조사 기준 |
| 2.2. 한자어 연구 | 4. 조사 결과 및 분석 |
| | 5. 맺음말 |

キーワード：国語辞典(Korean-Language & Japanese-Language Dictionary), シソーラス(Thesaurus), 漢字語(Chinese-derived words), 基本語彙(Basic Vocabulary), 語種(types of words by their origin), 語彙調査(Vocabulary Survey)

1. 머리말

우리나라에는 기원 전 2세기경에 한자가 전해져 지금까지 2천년 이상 사용되어 왔으며, 일본도 우리보다 역사가 짧은 하지만 거의 비슷한 기간 한자가 주요 표기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런 가운데 양 언어에는 고유어의 수를 능가할 정도로 많은 한자어가 어휘체계에 존재하게 되었다. 같은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한국어와 일본어는 어휘에서 한자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양 언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한자어가 있는 반면, 각각의 언어에만 존재하는 한자어도 다수 확인된다. 먼저 공통

* 이 논문은 2015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남대학교 교수, 일본어학.

어가 있는 반면, 각각의 언어에만 존재하는 한자어도 다수 확인된다. 먼저 공통 한자어로는 고대에 중국어의 단어가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에 전해진 것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한자어는 주로 中國古典에 典據를 두고 있는 한자어(加減, 家具, 歌舞, 可否, 家事, 價値, 苛酷 등), 또는 佛經에서 유래한 한자어로 주로 梵語를 중국식 音譯이나 意譯·造語한 한자어(伽藍, 覺悟, 葛藤, 感化, 講讀, 開講, 改宗, 등)이다.¹⁾ 또한 근대에 일본은 서양의 학문과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대량의 한자어를 번역·조어하게 되는데, 이러한 한자어가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에까지 들어가 사용되게 되며 공통 한자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그 예로 ‘科學, 演說, 工業, 野球’ 등을 들 수 있다.²⁾ 한편 양 언어는 한자·한문의 수용의 역사도 길고 그 정착도도 매우 높아 각각의 언어에서 한자의 의미와 한문의 어법 등을 활용하여 독자적인 한자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한국어-各出, 看守, 改過遷善, 節次, 行廊, 行次, 無窮花 등/일본어-大根, 火事, 返事, 心配, 物騒 등).

이와 같이 한자어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어휘부(語彙部)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주목하여 한자어의 양상, 서로의 유사점과 상이점, 상호 영향 관계 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본고는 그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한자어 비교를 위한 준비 단계로서 앞서 신민철(2012)에서는 한자어의 조사 대상 선정과 기준 설정이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사전의 규모와 표제어 수록 방식 등의 차이 때문에 동등하고 객관적인 비교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신민철(2014)에서 조사 대상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조사 기준도 약간 수정하였다. 본고는 선행하는 두 논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내용 및 구성 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밝혀 둔다. 앞선 두 논문에서는 조사 범위가 극히 일부에 국한되어 있어서 내용적인 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본고에서는 국어사전 전체에 대한 한자어 조사를 완료함으로써 객관성 및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사된 한자어에 대한 간단한 분석을 통해 한일 양 언어 한자어의 전체적인 경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어와 일본어의 한자어를 비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1) 朴英燮(1997) 「國語 漢字語에 대한 小攷」 『國語學』 29, pp.341~357 참조.

2) 野村雅昭(2012) 「現代日本漢語の性格」 『韓国日本研究団体 第1回 國際學術大會 要旨集』 韓國日本學會, p.158 참조.

를 파악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2. 선행연구

선행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각종 어휘자료의 어종별 통계를 통해 양 언어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아보고, 양 언어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자어 연구 중 대표적인 몇몇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1 어종별 통계

金光海(1993)³⁾을 참고로 지금까지 조사된 한국어와 일본어의 어종(語種)별 분포를 보도록 하겠다. 한국어의 경우 최근에 실시된 어종별 통계는 없지만 예전에 조사된 자료의 통계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1> 한국어의 어종별 구성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합계
큰사전 (한글학회, 1957)	74,612 (45.46%)	85,527 (52.11%)	3,986 (2.43%)	164,125 (100%)
국어대사전 (이희승 편, 1961)	62,912 (24.40%)	178,745 (69.32%)	16,196 (6.28%)	257,853 (100%)

<표1>을 보면 두 사전의 어종별 구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차이는 사전 편찬 시기의 차이도 있겠지만, 사전 편찬자의 편찬 태도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것과 비슷한 시기의 통계로서 거의 기본어휘에 가까운 국어 소사전의 등재 어휘를 대상으로 일본인 학자(中村暎枝)에 의해 이루어진 어종별 통계가 있다. 다음 <표2>가 그것이다.

3) 金光海(1993) 『국어어휘론 개설』 집문당, pp.109~115. <표1>, <표2>, <표3> 모두 여기에서 인용한 것으로 약간 수정을 하였다. <표2>의 출처는 中村暎枝(1968) 「現代朝鮮語の辭典見出語における語彙の分布狀況」(『朝鮮學報』 49)로 필요한 부분만 발췌했다. 또한, <표3>의 신문 어휘의 어종별 구성은 강신항(1988) 「한자어 사용의 현실과 처리문제」(『국어생활』 14호, 국어연구소)와 田中章夫(1978) 『國語語彙論』(p.173.)의 조사 자료를 종합한 것을 본고에서 재인용한 것이나 합계와 백분율 계산이 틀린 곳이 있어 재계산하여 수정했다.

〈표2〉 中村暎枝(1968)의 한국어 어종별 구성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계
28,626어	29,222어	1,949어	4,558어	64,355어
44.48%	45.41%	3.03%	7.08%	100%

다음은 실제 어휘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한국어와 일본어의 신문어휘의 어종별 구성을 보도록 하겠다.

〈표3〉 신문어휘의 어종별 구성

어 종	한 국 어		일 본 어
	중앙일보(83.7.28) 1면	일간스포츠(83.7.14) 11면	신문어휘조사 (국립국어연구소)
고유어	370(19.69%)	592(32.51%)	14,902(38.81%)
한자어	1,392(74.08%)	1,100(60.41%)	17,030(44.35%)
외래어	107(5.69%)	100(5.49%)	4,621(12.04%)
기 타	10(0.53%)	29(1.59%)	1,842(4.80%)
합 계	1,879(100%)	1,821(100%)	38,395(100%)

〈표3〉을 보면 한자어의 비율에 있어서 한국어가 일본어를 크게 앞서고 있는데, 이것은 모집단의 규모가 관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합계가 일본어 쪽이 한국어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보면, 한국어의 경우 어휘의 규모가 작을수록 한자어 의존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한편 일본 국어사전의 어종별 구성을 野村雅昭(2012)⁴⁾로부터 인용하여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4〉 일본 국어사전의 어종별 구성

	語數	和語	漢語	洋語	混種語
言海(1889-91)	39,103	55.8%	34.7%	1.4%	8.1%
例解国語辞典(1956)	40,393	36.6%	53.6%	3.5%	6.2%
新選国語辞典(8版/2002)	73,181	33.8%	49.1%	8.8%	8.3%
新選国語辞典(9版/2011)	76,536	33.2%	49.4%	9.0%	8.4%

4) 野村雅昭(2012) 「現代日本漢語の性格」 『韓国日本研究団体 第1回 国際学術大会 要旨集』 韓国日本学会, p.158.

<표4>를 보면 『例解國語辭典』(1956)에 이르러 和語보다 漢語의 비율이 높아져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더 이상의 증가세는 보이지 않는다.

이상 기존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국어와 일본어의 어종별 구성을 살펴본았는데, 전체적 경향으로서 한일 양 언어 모두 고유어보다 한자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외래어와 혼종어의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 이를 통해 양 언어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한자어 연구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일 양 언어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그것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본 항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한자어를 대상으로 어떤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단, 전체를 망라하는 것은 조사상의 한계와 시간적 제약도 있으므로 대표적인 것만 간단히 살펴보고자 하겠다.

먼저 한국에서의 한자어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李翊燮(1968)과 노명희(1997)은 한자어의 조어법에 관한 연구이다. 李翊燮(1968)은 한국어 조어법 연구의 기초 작업으로서 한자어의 조어법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자어에 대하여 접사(接辭.affix), 어간(語幹), 어근(語根)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노명희(1997)은 한자어의 형태에 대해서 고유어의 예와 함께 부분적으로 언급하거나 예외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많았음을 지적하고 단일 한자어, 복합 한자어, 접사류 한자어로 나누어 한자어 형태론에 대해 그 개략적인 특성을 살피고 있다. 한편 沈在箕(1989)와 朴英燮(1997)에서는 한자어에 대한 통시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沈在箕(1989)는 고대로부터 한자어가 한국어에 유입된 경위를 시대적으로 개관하고 있다. 朴英燮(1997)은 한자어의 여러 특징 중 그 기원을 통시적 관점에서 살피고, 또 현대국어 한자어의 조어상의 특징을 살피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자어의 생성·발달·보편화의 단계, 훈민정음창제 이전에 유입된 한자어, 한자어와 고유어간의 경쟁과 대체, 근·현대 한자어, 현대국어 한자어로 나누어 자세히 고찰하고 있다. 또한 강신항(1995)에서는 19세기 후반기부터 다량으로 유입되게 되는 일본어식 한자어의 유입 방식과 유형에 대해 예를 들어가면서 시기별로 자세히 설명

하고 있다.

다음은 일본어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본어에서는 한자어의 어구성(語構成)에 관한 연구로서 野村雅昭 씨의 일련의 연구가 있다. 野村雅昭(1974a, 1974b, 1976)은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에서 이루어진 신문어휘조사의 데이터로부터 일정한 기준에 의해 三字漢語와 四字漢語를 추출하여 형태상·의미상의 특징, 결합 패턴, 의미상의 특징과 결합 패턴과의 관계를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또한 野村雅昭(1988)은 소형 국어사전에서 二字漢語를 추출하여 결합 패턴에 따른 분포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陳力衛(2005)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한자어인 「和製漢語」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으며 어떠한 패턴을 보이며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 고찰하고 있으며, 朱京偉(2005)는 근대 이후 「日本製漢語」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중국어에 유입되었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상기의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한자어의 조어법이나 어구성(語構成)에 관한 연구와 한자어의 생성과 유입 등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연구를 통해 양 언어의 한자어의 특징은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할 수는 있으나, 언어 간의 비교를 하게 되면 새로운 관점에서의 조명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것을 실천한 연구로서는 宋永彬(1993)과 俞長玉(1995)를 들 수 있다. 宋永彬(1993)은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출현한 한자어를 의미분야별로 나누어 보았을 경우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어종별로 보았을 때 한국어 쪽이 일본어에 비해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이고, 각 의미분야별로 그 원인에 대해 자세히 고찰하고 있다. 이 연구는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어휘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한자어 비교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俞長玉(1995)는 민중서림의 『日韓辭典』에 수록되어 있는 한자어를 대상으로 형태에 의한 분류(日韓異形語)와 의미에 의한 분류(異形同義語·同形同義語·同形異義語)를 통해 형태와 의미의 면에서 자세한 고찰을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사전의 표제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 언어체계 전체를 시야에 넣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이 『日韓辭典』이기 때문에 일본어 쪽에 중점이 놓이게 되어 한국어의 한자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赤字(あ

かじ), 大勢(おおぜい), 手当(てあて), 身分(みぶん), 組合(くみあい)' 등과 같은 단어도 한자어로 취급하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3. 조사 대상 및 기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국어와 일본어의 한자어 연구는 각각의 언어 내에서 어떠한 양상과 특징이 보이는가를 밝히는 것에 치우쳐 있고, 두 언어 사이의 비교 연구는 매우 한정돼 있었다. 그것도 자료의 한계와 방법 등의 문제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체계 전체를 시야에 넣은 한자어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양 언어의 언어체계 전체에서 운용되고 있는 한자를 대상으로 비교를 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 언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를 총망라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어느 정도 한정을 두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 방법으로는 코퍼스(corpus)를 조사하는 방법도 있으나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각각의 언어에서 시소러스(thesaurus)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는 표준적인 국어사전을 대상으로 한자어를 추출하고자 한다. 조사 및 연구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편찬 방침이나 수록어수의 면에서 상호 비교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양 언어의 표준적인 국어사전을 선정한다. 그런 다음 한자어를 조사하기 위한 동등한 기준을 설정하여 사전의 표제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실제 조사는 사전의 표제어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엑셀 파일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양 언어의 한자어 입력 작업이 끝나면 엑셀의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한일 공통 한자어와 각각의 언어에만 있는 한자어로 분류한 후 유사점과 상이점을 밝히고 그 원인에 대해 고찰한다.

다음은 한자어의 조사 대상과 조사 기준에 대해 기술하도록 하겠다.

3.1 조사 대상

신민철(2012)에서는 발간 년도가 별로 떨어져 있지 않고 가급적 최신의 것

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생각에서 각각 『옛센스 국어사전(제6판 전면개정판)』(민중서림, 2006)과 『新明解国語辞典(第七版)』(三省堂, 2012)을 대상으로 한자어 조사 기준을 설정하고 한국어는 「가」항, 일본어는 「あ」항까지만 조사하여 비교를 시도하였다. 표제어 수에서 한국어 16만 여, 일본어 7만 7천 5백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한국 국어사전이 일상어뿐만 아니라 전문어와 복합어까지 폭넓게 수록하고 있다는 편찬 방침의 차이가 있었지만, 조사 기준을 잘 설정하면 조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전문용어, 파생어, 복합어, 한자 표기가 들인 경우, 발음이 들인 한자어 등에 대하여 양 언어에 동등한 기준을 설정하여 조사한 결과, 한국어 쪽에는 ‘가가문전(家家門前), 가가호호(家家戶戶), 가감부득(加減不得), 가감지인(可堪之人), 가거지지(可居之地), 가롱성진(假弄成真), 가부득감부득(加不得減不得), 가부취결(可否取結), 가이동가이서(可以東可以西), 가취지례(嫁娶之禮),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등과 같은 한문 어구(語句)나 문(文)으로 이루어진 한자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 한자어는 일상생활에서는 접하기 힘든 것들이다. 이와 같이 한쪽 언어에만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한자어가 많이 조사되게 되면 상호 동등한 비교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등한 비교를 위해 『옛센스 국어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전문어는 표제어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배제해야 하는데, 조사할 분량이 얼마 되지 않으면 그다지 어려운 작업이 아니겠지만, 사전의 표제어 전체를 대상으로 전문어인지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작업이어서 조사의 능률과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신민철(2014)에서는 조사 대상으로 삼을 사전을 새롭게 선정하였다.

편찬 방침 및 수록어수의 면에서 상호 비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전으로서 다음의 두 사전을 선정하였다.

『연세한국어사전』(두산동아, 1998)

『新明解国語辞典(第七版)』(三省堂, 2012)

『연세한국어사전』은 ‘연세 말뭉치’(약 4,300만 어절, 보통 책으로 약 18만 쪽의 분량)에서 고유명사를 제외하고 14번 이상 나타나는 낱말(단어 및 문법 형태소) 약 5만 개를 표제어로 삼고 있다. 이 표제어들은 다양한 언어자료의

어휘조사를 통해 얻어진 것으로 실제 언어생활을 반영하고 있으며, 상당한 빈도를 보이고 있어 기본어휘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한편 『新明解国語辞典』의 편집 방침 첫머리에 ‘この辞典は、現代の言語生活において最も普通に用いられる日本語について、その多岐にわたる用法を種種の角度から分析・検討し、的確な理解の一助となるとともに、適切・効果的な使用が可能であることを念じて編集された。(이 사전은 현대의 언어생활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어에 대하여, 그 다기에 걸친 용법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검토하여 정확한 이해의 일조가 됨과 동시에 적절·효과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편집되었다.)(p.7. 밑줄 필자)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수록된 표제어의 성격은 한국어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록어수는 『新明解国語辞典』 쪽이 더 많은데 초판(1972年) 이래로 수록어수를 함부로 늘리기보다는 표제어에 관한 다양한 정보(語義, 文法, 用法 등)를 충실히 제공하겠다는 방침으로 편집을 해오고 있어 한자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第7版은 第6版(2005年 發行)보다 새롭게 1,000語가 증보되었는데 그 대부분은 외래어나 일본제 영어(和製英語)라고 한다.

상기 두 사전은 발간 년도가 많이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표제어가 실제 언어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본어휘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수록어수의 차이도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비교 대상으로서 적합하리라 본다.

3.2 조사 기준

실제로 어휘조사를 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조사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것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달라지므로 충분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에서는 국립국어연구소가 신문, 잡지, 교과서 등을 대상으로 일련의 어휘조사를 행하면서 여러 조사 단위를 실천했다. 조사·조동사와 같은 부속어나 기호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지의 여부, 복합어를 그대로 조사 단위로 할 것인지의 여부 등에 의해 나누어지며 긴 단위로서는 장(長)단위, a단위, W단위, 짧은 단위로는 단(短)단위, β단위, M단위가 있다.⁵⁾

그러나 본고는 어휘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의 표제어 중에서 한자어

5) 田中章夫(1978)『国語語彙論』明治書院, pp.39-43.

를 추출해 내는 것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조사 단위라고 하기보다는 어떠한 것을 한자어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본어에서는 한자로 표기 가능하고 음독(音讀)하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한어(漢語)라 부르고, 음(音)(「자음(字音)」이라고도 함)으로 읽는다고 해서 자음어(字音語)라고도 한다. 한편 한국어에서는 한자어(漢字語)라는 용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하나의 용어만으로는 양쪽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두 용어를 모두 사용하기로 하고, 한자로 표기하고 음(音)으로 읽는 것을 한어(漢語) 또는 한자어(漢字語)로 부르기로 한다. 단 ‘すかんぴん[素寒貧], すてき[素敵·素適], とんちんかん[頓珍漢]’ 등과 같은 일본어의 「宛字」는 한자로 표기하고 음으로 읽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한자어 구성 방식을 따르고 있지 않으며 한자와 단어 사이에 의미적 연관성이 없거나 낮으므로 한자어로 보지 않고 조사에서 배제하기로 한다. 또한 ‘あほう[阿呆·阿房], むちや[無茶], むてっぽう[無鐵砲], めった[滅多], めんどう[面倒], やじ[野次·弥次]’ 등과 같은 차자(借字) 표기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조사에 임해서는 조사의 편의를 위해서 국어사전의 표제어를 최대한 반영하기로 하며 어느 정도 자립성이 인정되는 한자어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따라서 일본 국어사전에 표제어로 실려 있는 ‘-家(け), 御(ご)-, -中(じゅう)’ 등과 같은 접사(接辭)는 제외가 되는 것이다. 그밖에 품사가 복수인 한자어, 표기가 복수인 한자어, 발음이 복수인 한자어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① 품사가 복수인 한자어

한국 국어사전에는 ‘가급적(可及的), 내향적(內向的), 도덕적(道德的), 모범적(模範的), 법률적(法律的), 사회적(社會的), 자발적(自發的)’ 등과 같이 ‘~적(的)’의 구성을 갖는 한자어가 명사와 관형사로서 2개의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결국(結局; 명사/부사), 다소(多少; 명사/부사), 택(宅; 명사/대명사), 만약(萬若; 명사/부사), 본래(本來; 명사/부사), 소인(小人; 명사/대명사), 안녕(安寧; 명사/감탄사), 전부(全部; 명사/부사), 지금(只今; 명사/부사), 하등(何等; 명사/부사)’ 등과 같은 한자어도 각각의 품사가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품사는 통사 또는 용법에 의한 구분이고 의미상 차이는 없으므로 한자어로서는 하나로 인정하기로 한다.

② 표기가 복수인 한자어

일본 국어사전에는 표제어 하나에 한자 표기가 복수인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용한자(常用漢字)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일본 정부는 표기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한자 대신에 익히고 쓰기에 비교적 용이한 한자를 상용한자로 선정하여 일상생활에서 현대 일본어를 표기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2,136字가 선정되어 있다.⁶⁾ 따라서 원래 한자어에 상용한자 이외의 한자가 들어있는 경우 대부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한자 표기를 해결하고 있다. 먼저 ‘あんしょう(暗唱·暗誦), いしゃ(慰謝·慰藉), かいり(海里·海漚), けいりゅう(係留·繫留), たいとう(台頭·擡頭), たいしょく(褪色·退色)’(밑줄 친 한자가 상용한자 이외의 한자. 이하 같음) 등과 같이 음(音)이 같으면서 유사한 의미를 갖는 한자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은 ‘いっしょ(逸書·佚書), きんよく(禁欲·禁慾), くんかい(訓戒·訓誡), ざぜん(座禪·坐禪), しせき(史跡·史蹟·史迹), せんかい(旋回·旋廻), せんれん(洗練·洗煉), だいきょう(大凶·大兇), たんせい(嘆声·歎声)’ 등과 같이 상용한자 이외의 한자와 동자(同字), 통자(通字), 또는 이형동의자(異形同義字)를 이용해서 표기하는 방법이 있다. 한국 국어사전에도 ‘개탄(慨歎·慨嘆), 근저(根柢·根底), 기별(奇別·寄別), 논고(論考·論攷), 독배(毒杯·毒盃), 목면(木棉·木綿), 병설(竝設·併設), 영수(領收·領受), 주석(註釋·注釋), 퇴색(退色·褪色), 편지(便紙·片紙), 폭발(爆發·暴發), 행적(行蹟·行績)’ 등과 같이 한자 표기가 복수인 표제어가 있는데 일본 국어사전과 마찬가지로 동자(同字), 통자(通字), 이형동의자(異形同義字)가 쓰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전에서는 이들 한자 표기를 모두 제시하고 있으나 한자어로서는 하나이므로 그 각각을 따로 조사하지는 않는다.

③ 발음이 복수인 한자어

‘悪貨(あくか·あつか), 各界(かくかい·かつかい), 劍客(けんきやく·けんかく), 国家(こくか·こつか), 砂金(しゃきん·さきん), 十戒·十誡(じゅうがい·じゅうかい), 人文(じんもん·じんぶん), 青龍(せいりゅう·せいりょう), 重任(ちょうにん·じゅうにん), 適期(てきき·

6) 『ウイキペディアフリー百科事典』(https://ja.wikipedia.org/wiki/) 참조. 상용한자(常用漢字)에 대하여 「法令、公用文書、新聞、雑誌、放送など、一般の社会生活において、現代の国語を書き表す場合の漢字使用の目安(법령, 공용문서, 신문, 잡지, 방송 등 일반 사회생활에서 현대 국어를 표기하는 경우의 한자 사용의 표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てつき), 登攀(とはん·とうはん), 末子(ぼっし·まっし), 白夜(びやくや·はくや), 反故(ほうぐ·ほうご·ほぐ·ほご), 法主(ほうしゅ·ほっしゅ·ほつす), 乱行(らんこう·らんぎょう), 良家(りょうか·りょうけ) 등의 한자어는 보는 바와 같이 발음이 복수인데 각각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는 경우이다. 또한 ‘異名(이메이; 「いみょう」의新しい語形), 榮耀(えよう; 「えいよう」의古語的表現), 吉日(きちじつ; 「きちにち」의新しい言い方), 気味(키미; 「きみ」의古形·方言形, 見聞(けんもん; 「けんぶん」의古風な表現)’ 등과 같이 새로운 어형(語形), 고어적(古語的) 표현이나 형태, 방언형(方言形)이 원래의 형태와 더불어 표제어로 실려 있다. 그러나 이들 한자어는 의미상 변화는 없으므로 하나의 한자어로 조사하기로 한다.

4. 조사 결과 및 분석

상기의 기준에 따라 양 언어의 국어사전에서 한자어를 조사한 결과 한국어는 23,678語, 일본어는 31,622語가 각각 조사되었다. 단어 수에서 8천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는 수록어수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록어수 대비 한자어 비율을 보면 한국어는 47.4%(수록어수-약 5만語), 일본어는 40.8%(수록어수-7만 7천 5백語)로 오히려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높게 나타난다. 조사된 한자어에 대하여 한일 공통한자어와 각각의 언어에만 있는 한자어로 나누어 단어의 길이에 따른 분류를 통해 어떠한 경향이 보이는가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양 언어의 국어사전에는 표기가 둘 이상인 한자어도 수록되어 있으므로 그 중 하나만 일치해도 공통되는 것으로 보도록 한다. 또한 조사의 편의상 형태(形態)의 일치 여부만 보도록 한다. 조사 결과 한일 공통한자어는 8,522語, 한국어에만 있는 한자어는 15,156語, 일본어에만 있는 한자어는 23,100語로 나타났다. 먼저 한일 공통한자어의 단어 길이에 따른 구성을 보이면 다음 <표5>와 같다.

<표5> 한일 공동안자어의 단어 길이별 구성

단어 길이	단어 수	비율
1字	287	3.37%
2字	7,862	92.26%
3字	318	3.73%
4字	52	0.61%
5字	2	0.02%
6字	1	0.01%
합 계	8,522	100%

<표5>를 보면 2字 構成을 갖는 한자어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현대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한자어의 구성이 ‘文化, 世界, 意味, 平均, 現在’ 등과 같이 2字 構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野村雅昭(1976)도 지적하는 바이다. 1字 構成 한자어는 수사(一, 二, 三·參, 四, 五, 七, 八, 九, 十, 百, 千, 億, 兆, 京), 단위를 나타내는 말(個, 件, 期, 年, 頭, 斗, 等, 枚, 番, 部, 分, 尺, 寸, 通, 項), 그밖에 자립어로서의 용법이 있는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3字와 4字 構成 한자어에는 ‘大家族, 無事故, 別世界, 失語症, 流線型, 準決勝, 反社會的, 人本主義, 低開發國’과 같이 2字 構成 한자어에 접사가 붙거나 2字 構成 한자어끼리 결합된 과생어나 복합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4字 構成 한자어에 ‘甲論乙駁, 捲土重來, 難攻不落, 同床異夢, 馬耳東風, 明鏡止水, 武陵桃源, 十中八九, 阿鼻叫喚, 我田引水, 弱肉強食, 五里霧中, 臥薪嘗膽, 外柔內剛, 右往左往, 有耶無耶, 以心傳心, 一瀉千里, 一進一退, 一攫千金, 自業自得, 自暴自棄, 朝令暮改, 朝三暮四, 天衣無縫, 千差萬別, 針小棒大, 虎視眈眈’와 같은 한자성어(漢字成語)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5字와 6字 構成 한자어는 ‘五十步百步, 一酸化炭素, 南無阿彌陀佛’이다. 한편 공동안자어 중 ‘乞食, 工夫, 上手, 十分, 平生’ 등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의미차이를 보이는 것들이다.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한자어 비교를 위해서는 향후 의미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각각의 언어에만 있는 한자어의 단어 길이에 따른 구성을 보도록 하겠다. 다음 <표6>과 <표7>이 각각 한국어와 일본어에만 있는 한자어의 단

어 길이별 구성이다.

<표6> 한국어에만 있는 한자어의 단어 길이별 구성

단어 길이	단어 수	비율
1字	325	2.14%
2字	7,478	49.34%
3字	6,585	43.45%
4字	721	4.76%
5字	44	0.29%
6字	3	0.02%
합 계	15,156	100%

<표7> 일본어에만 있는 한자어의 단어 길이별 구성

단어 길이	단어 수	비율
1字	533	2.31%
2字	20,399	88.31%
3字	1,702	7.37%
4字	413	1.79%
5字	40	0.17%
6字	12	0.05%
7字	1	0.00%
합 계	23,100	100%

<표7>을 보면 일본어에만 있는 한자어의 단어 길이별 구성은 한일 공통한 자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字 構成 한자어가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은 3字, 1字 構成의 순이며 나머지는 글자 수가 늘어날수록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5字, 6字, 7字 構成 한자어에 들어있는 ‘角兵衛獅子, 金山寺味噌, 虚空藏菩薩, 三十一文字, 三十六歌仙, 四万六千日, 枢密顧問官, 征夷大將軍, 八十八箇所, 琉璃光如来, 五右衛門風呂, 三千大千世界, 南無妙法蓮華經’은 일본의 역사, 문화, 불교 등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일본어 고유의 한자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표6>을 보면 한국어에만 있는 한자어의 경우는 3字 構成 한자어가 2字 構成 한자어에 버금가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字 이상으로 구성

된 한자어는 2字 構成 한자어를 기본 단위로 한 파생어나 복합어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자어 조사 대상으로 삼은 한국 국어사전이 파생어와 복합어도 표제어로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만약 이들 한자어를 구성 요소로 분해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공통도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다. 이 점은 앞으로의 연구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 쪽에도 단어 길이가 긴 한자어 중에 ‘觀世音菩薩’이라는 불교 관련 용어가 들어 있다. 또한 ‘家和萬事成, 東方禮儀之國’과 같은 한자어는 한문 구성방식을 따르는 한자어로 한국어에 특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5. 맺음말

본고에서는 언어 체계 전체를 시야에 넣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한자어 비교를 위하여 양 언어의 국어사전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한자어 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어는 23,678語, 일본어는 31,622語가 각각 조사되었다. 그 중 한일 공통한자어는 8,522語, 한국어에만 있는 한자어는 15,156語, 일본어에만 있는 한자어는 23,100語로 나타났다. 이 각각에 대하여 한자어가 몇 자(字)의 한자어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단어의 길이별 구성을 기초로 분석을 행한 결과,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2字 構成 한자어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字 構成 한자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3字와 4字 構成 한자어에는 2字 構成 한자어의 2次 結合에 의한 파생어와 복합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5字, 6字로 글자 수가 늘어날수록 그 언어에 특징적인 한자어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한편 한국어에만 있는 한자어에서는 3字 構成 한자어가 2字 構成 한자어에 버금가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 국어사전이 일본 국어사전과 달리 파생어와 복합어도 표제어로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로 밝혀졌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한자어의 공통도 및 각각의 언어에만 있는 한자어를 조사할 때 이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편의상 한자어의 형태(形態)만 고려했지만, 앞으로는 의미, 품사, 의미분야 등 다양한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여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한자어 비교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삼는다.

【참고문헌】

<한자어 조사 대상 자료>

-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1998).
『新明解國語辭典(第七版)』 (三省堂, 2012).

<참고 서적 및 논문>

- 강신항(1995) 「일본 한자어」 『새국어생활』 5-2 국립국어연구원, pp.27-59.
金光海(1993) 『국어어휘론 개설』 집문당, pp.109-115.
노명희(1997) 「한자어 형태론」 『國語學』 29, pp.309-337.
朴英燮(1997) 「國語 漢字語에 대한 小攷」 『國語學』 29, pp.341-357.
宋永彬(1993) 「『分類語彙表』による日韓基本漢語の對照」 『早稻田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紀要』 別冊第20集文學·芸術學編, pp.147-160.
申玟澈(2009) 『日本語と韓國語の語彙比較研究』 어문학사, pp.10-14.
신민철(2012) 「韓國語와 日本語의 漢字語 比較-조사 대상 및 기준 설정을 중심으로-」 『日本語學研究』 第35輯 韓國日本語學會, pp.209-221.
_____ (2014) 「한일 국어사전의 한자어 조사 및 비교 고찰」 『韓日語文論集』 第18輯 韓日語日文學會, pp.19-32.
沈在箕(1989) 「漢字語 受容에 關한 通時的 研究」 『國語學』 18, pp.89-108.
俞長玉(1995) 「日韓兩國語의 漢字語의 對照研究-同形異義語を中心に-」 『日本語學報』 第1輯, 日本語文學會, pp.31-79.
李翊燮(1968) 「漢字語 造語法의 類型」 『李崇寧博士頌壽紀念論叢』 pp.475-482.
朱京偉(2005) 「日中漢語의 交流」 『國文學解釋と鑑賞』 70-1, pp.27-36.
田中章夫(1978) 『國語語彙論』 明治書院, pp.39-43.
陳力衛(2005) 「和製漢語의 形成」 『國文學解釋と鑑賞』 70-1, pp.38-46.
野村雅昭(1974a) 「三字漢語의 構造」 『電子計算機による國語研究VI』 pp.37-62.
_____ (1974b) 「四字漢語의 構造」 『電子計算機による國語研究VII』 pp.36-80.
_____ (1976) 「現代漢語의 語構成について」 『情報處理』 18-11, pp.884-891.
_____ (1988) 「二字漢語의 構造」 『日本語學』 7-5, pp.44-55.
_____ (2012) 「現代日本漢語의 性格」 『韓國日本研究團體 第1回 國際學術大會 要旨集』 韓國日本語學會, p.158.

논문 투고 일자 : 2016. 06. 30.
논문 심사 일자 : 2016. 07. 25.
게재 확정 일자 : 2016. 07. 27.

 <要旨>

韓日兩國國語辭典の漢字語調査および傾向分析

申玟澈

私は韓日両言語において漢語が使用される様相、互いの類似点および相違点、相互の影響関係など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研究を進めている。その中間段階として、本稿では、言語体系全体を視野に入れた韓国語と日本語の漢字語比較のために、両言語の国語辞典全体を対象として漢字語調査を完了した。その結果、韓国語からは23,678語、日本語からは31,622語の漢字語が得られた。そのうち、韓日で共通の漢字語、韓国語にのみある漢字語、日本語にのみ存在する漢字語に分類し、その各々に対して漢字語が何文字で構成されているかを基に分析を行なった。その結果、韓国語と日本語ともに2字構成の漢字語を基本にしているため、全体的に2字構成の漢字語が最も高い割合を占め、3字と4字構成の漢字語には2字構成の漢字語の二次結合による派生語と複合語が多数含まれていた。さらに、5字、6字と字数が増えるほど、その言語に特徴的な漢字語が多数確認された。一方、韓国語にのみ存在する漢字語においては3字構成の漢字語が2字構成の漢字語に匹敵する割合を占めていた。これは、韓国語の国語辞典が日本語の国語辞典と違い、派生語と複合語を見出し語として幅広く収容していることが原因である。これからの研究においては、漢字語の共通度および各々の言語にのみ存在する漢字語を調査する際、この点が十分考慮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形態だけでなく、意味、品詞、意味分野など様々な観点を十分反映させることによって、より客観的で正確な漢字語の比較分析を行なう必要がある。

A Extraction and Tendency Analysis of Chinese-derived Words in Korean-Language & Japanese-Language Dictionary

Shin, Min-Chul

A study, which aims to find a general tendency, similarities & differences, a correlation, etc. of Chinese-derived word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Language, is in progress. As an intermediate stage of this study, in this paper, it is completed to extract Chinese-derived words in the whole Korean-Language & Japanese-Language Dictionary. As a result, 23,678 words of Sino-Korean and 31,622 words of Sino-Japanese were extracted. After classifying these Chinese-derived words into those in both languages, those only in Korean, and those only in Japanese, we analyzed how many Chinese characters are used in composing Chinese-derived words. The result was that Chinese-derived words composed of 2 Chinese characters have the highest percentage as a whole, for that is the basic pattern of Chinese-derived words in both Korean and Japanese. And a number of 3 and 4 Chinese-character words are derivatives or compound words by secondary combination of 2 Chinese-character words. And also a number of distinctive Chinese-derived words in each language were identified in case of 5, 6 and more Chinese-character words. Whereas 3 Chinese-character words had about the same percentage of 2 Chinese-character words in Chinese-derived words only in Korean. It is the main reason that Korean-Language Dictionary, contrary to Japanese-Language Dictionary, contains derivatives or compound words as an entry widely. In future studies, we should take this into account when classifying Chinese-derived words. Also we need to consider not only form but various aspects of Chinese-derived words, such as meaning, parts of speech, meaning field, etc. for more objective and accurate comparative analysis.